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여수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자전거보험 가입

### 시민과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 위해 가입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 7일 1억 4701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별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중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차선이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담양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박차’

담양군복지재단이 지역 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1:1 후원자 결연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후원자를 1:1로 연결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청소년들과의 정서적 격차를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정기탁금은 학원비를 내거나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래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현재 매월 후원자가 담양군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이 아닌 후원품비 등으로 소액을 전달해 주고 있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아동·청소년에게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남 이사장은 “결연사업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 목적이다”며 “청소년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결연사업을 함께하고 싶은 후원자는 담양군복지재단 민간협력팀(061-383-8296)으로 연락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암군, 월동 후 맥류 재배관리 현장기술지원

### 맥류생육재생기 웃거름 사용...봄파종 기술지원 나서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봄철 웃거름 주는 시기를 판단하는 맥류 재생기를 겨울철 기상과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이달 10일로 판단하고 웃거름 적기 적정량 사용 등 재배관리 요령에 대한 농가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

웃거름은 재생기 직후 10일 이내인 20일까지 주어야 하며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웃거름을 주어야 이삭 당 낱알수가 증가하고 생육 후기

까지 비효가 지속되어 잘 여물게 할 수 있다. 웃거름 주는 요령은 10a당 요소 10kg을 1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사질토나 작황이 불량한 토양은 5kg씩 2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맥주보리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종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품질이 떨어지므로 4~7kg을 1회만 주어야 한다.

또한, 가을철 잦은 강우 등으로 과

중시기를 놓쳤을 경우 가을보다 약 25% 증량해서 2월 중·하순까지 봄파종해야 하며, 잡초방제는 파종 전 표면로터리 또는 파종직후 2~3일 이내에 토양처리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정진태 소장은 “보리, 밀, 조식용 맥류의 종자는 생육재생기 재배관리에 달려 있다”면서 “웃거름 적기사용과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순회지도



진도군이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소 리지원센터가 어린이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군은 관내 10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 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1월부터 위생·안

전·영양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방문지도는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소규모 보육시설을 찾아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급식소를 방문해 급식소 주방기구 살균 소독 방법 식재료의 올바른 구매 및 보관 방법 등과 아울러 표준화된 조리법 권장 배식 시 위생관리 방법 등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게 된다.

특히 진도군은 ▲영양관리지원 계

획 수립 및 영양관리 자료 개발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영양식단 개발 ▲위생·안전관리 실제 파악 및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관광과 위생담당 관계자는 “급식소 순회방문 교육과 함께 어린이, 학부모, 원장, 교사, 조리사 등의 교육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더욱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2월 해양치유 먹거리 ‘김’ 선정

완도군은 2019년도를 ‘해양치유 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정함에 따라 매월 제철 맛은 완도산 농·수산물을 해양치유 먹거리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11월부터 4월까지 채취하고 2월에 가장 많이 생산되며 맛과 향이 일품인 ‘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조류 중 으뜸으로 꼽히는 김은 비타민과 단백질,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김 한 장에는 달걀 2개와 맞먹는 비타민A가 들어 있다.

또한, 비타민B1은 체소보다 많고, 비타민B2는 우유보다 많으며, 비타민C는 감귤의 3배나 되고, 마른 김의 단백질 함량은 콩보다 많다.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재래김부터 특유의 파래향이 살아있는 파래김,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돌김, 두툼하고 거칠지만 구수한 곱창김, 지주식돌김 등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2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갯벌 위에 지주목을 설치하여 김을 재배하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은 2017년 해양수산부 지정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됐다.

완도의 김 양식 어가는 총 449호로 시설량은 138,689책에 달하며 올해 생산량은 약 16,642천송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의 본고장인 마른 완도에는 김과 관련된 일화가 많다.

그중 보릿고개 등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김을 잘 먹지 않았는데, 김이 소화 기능을 촉진하여 배고픔이 빨리 찾아왔던 터라 잘 찾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슈퍼 푸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김 스낵이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KATI(농식품 수출 정보)의 해조류 수출 실적을 보면 김은 2014년도에 약 2억 7천 4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두 배에 가까운 5억 2천 5백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산업의 반도체로 불린다.

완도=김광수 기자

## 곡성군, 봄철 대비 농촌관광 관련시설 합동 안전점검



최근 강릉선 참사, 고시원 화재 사고 등으로 사고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곡성군이 농촌 관광 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곡성군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동절기 대

비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점검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겨울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 의식을 일깨우고자 이번에 다시 점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상을 대폭 확

대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0월 점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가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업, 농어촌민박 등 농촌 관광 관련 시설 12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곡성·옥과 119안전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기분야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각각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시설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말 안전점검에서 취약했던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및 위생관리,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부당 및 위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